


 숨은그림찾기 <79>


(찾아보세요) 부엌칼, 페총, 고추, 셔틀콕, 열대어, 바늘, 디리미, 상어, 새집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으나.”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줘요.”

“나 오늘 3천만원 생겼어.”

“정말예요?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요?”

“그 돈 퇴직금이야.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지난주 정답

열대어, 고추, 양주잔, 상어, 우산, 구두, 봉당연필, 종이배, 셔틀콕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맹완 <광주시 남구 주월동> 황유경 <광주시 북구 중흥 1동>

아하! 오늘 바로 그날

1883년 태극기 공식 국기 제정 선포



지난달 28일 처음 공개된 태극기 최초의 원형.

흰색 바탕에 적색과 청색으로 이루어진 태극 문양, 그리고 네 모서리에 청색으로 칠해진 건(乾)·곤(坤)·감(坎)·이(離)의 사괘(四卦).

독립 기념관은 지난달 28일 조선이 국기로 사용한 태극기를 복원해 언론에 공개했다. 박영효가 1882년 일본 수신사로 가는 배에서 그렸다는 국기의 모사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126년 전의 태극기이다.

고종은 박영효가 제작한 태극기를 1883년 3월 국기로 제정해 선포했다.

영국 국립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실물 크기의 사본은 박용호가 수신사로 일본에 머물던 당시 일본 와무성 외무 대보(차관) 요시다 기요나리가 주일 영국 공사 해리 파크스에게 보낸 문서에 첨부돼 보관되어 있다.

흰 바탕 중앙에 태극 문양, 건곤감이리의 4괘는 현행 태극기와 같지만 태극 문양의 소용돌이가 더 강하며 괘의 색 역시 검은 색이 아닌 청색이다. 문서에 의한 크기는 가로 4척7촌(142.41cm), 세로 3척8촌(115.14cm), 태극 지름은 2척7촌(81.81cm)이다.

이 문서에는 또 “며칠 전 규하(파크스)가 구두로 요청한 바에 따라 조선 국기로 알려진 깃발의 사본을 동봉한다”라고 쓰여 있어 모사본이 한국 국기의 원형임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박영효가 그린 원래의 국기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1882년 10월 2일자 일본 ‘시사 신보’에 실린 스케치로 그 형태를 추정해 왔지

만, 일본 정부의 공식 외교 문서의 모사본이 발견돼 최초의 태극기와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됐다.

국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개항 후 서구 열강과의 교섭이 빈번해지면서였다. 1876년 운요호 사건으로 “운요호에 엄연히 일본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砲擊)을 가하였느냐?”는 일본의 항의를 받을 때까지 조정의 인사들은 국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다.

이후 국기 제정 필요성이 활발하게 거론되면서 1883년 태극기가 공식 국기로 제정됐다. 그러나 해방 때까지 구체적인 제작법이 명시되지 않다가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국기의 도안과 규격이 통일되었다.

1949년 1월 대통령 특령으로 “국기시정위 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행 국기 가 확정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 국기의 제작·개양·관리 등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김빠진 탄산음료 재활용

탄산 음료는 용기를 열고 나면 금세 김이 빠져 맛이 떨어집니다. 김빠진 탄산음료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김빠진 사이다

김빠진 사이다는 꽂병에 부어보세요. 삼투압 작용에 의해 꽂이 물을 잘 흡수해 싱싱함이 오래동안 유지됩니다. 사이다를 차갑게 해서 부어 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빠진 콜라

고기장을 때 콜라를 이용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누린내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기나 육조, 세면대에 김빠진 콜라를 조금씩 흘려주면서 닦아주면 묵은 때를 제거하는데 좋습니다.

또 김이 빠진 콜라를 냉동실에 얼려 두었다가 과일과 함께 믹서기로 갈아주면 맛있는 슬러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5일(음 1월 28일 甲辰)

 36년생 충의 불편사가 발생한다. 48년생 부부사이에 불편함이나난다. 60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신중함이 있으어야. 72년생 질서를 살피며 조심. 84년생 밖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7, 27
 37년생 침체 속에 살리기 있다. 49년생 대 밟전을 약속하고 가속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61년생 듣는 좋은 미무리에 있다. 73년생 확신이 없는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85년생 혼분이되도록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12, 28
 38년생 문서 작업으로 인해서 대고여기 증후증에서 벗어나야. 50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괴롭게 진행하다. 62년생 태어난 의사와 조언이 우려된다. 74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08, 41
 39년생 길사에서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에 안정 된다. 51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속고하라. 63년생 친구 친척간에 혼사나다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75년생 혼자 우려되거나 조개된다. 행운의 숫자: 14, 42
 40년생 음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나 스스로 폐한다. 52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64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76년생 과욕만큼 잊을 수 있는 손재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11, 31
 41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53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나 활용하다. 65년생 힘비가 엇갈리는 하루나 선택을 짐작하고하라. 77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고집 수도. 행운의 숫자: 09, 33
 42년생 첫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54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을 저鹜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66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활성화되리라. 78년생 예기지 못한 악습이나 순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03, 43
 43년생 증상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도 어수선하다. 55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67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V 응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때려낸다. 행운의 숫자: 01, 44
 44년생 종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게 된다. 56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 68년생 종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80년생 내 것 잊고 송사 할 수도. 행운의 숫자: 21, 16
 45년생 스스로 자파하는 격이요. 57년생 가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69년생 전화위복이나 변동으로 길사가 점개된다. 81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이 된다. 행운의 숫자: 05, 43
 46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돈다. 58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70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82년생 백사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04, 35
 47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59년생 비정한 괴로움이 일어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 71년생 사회활동을 활동하게 할 주변이 다가 오니 조심하다. 83년생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10, 38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10>

I have got to the mall.
저는 쇼핑을 하러 가야 합니다.

A : Are you doing anything today?

B : Yah, I've got to go to the mall.

A : Can I go with you?

B : Sure.

A : 오늘 할 일이 있습니까?

B : 네, 쇼핑하러 가야 해요.

A : 같이 가도 돼요?

B : 그럼요.

* 편지를 몇 통 보내야 하거든요.

= I've got to mail some letters.

* 새 옷 몇 벌을 구입해야겠습니다.

= We have got to get some new clothes.

오하요우 니혼고 <1110>

意外(이가이)と優(やさ)しいですね。

의외로 자상하시군요

A :もう、10時(じ)ですね。そろそろ歸(かえ)りましょう。

B :もう、歸(かえ)るんですか。

A :はい、妻(つま)が寝(ね)ないで待(ま)ってると思(おも)うんです。

B :へ~、田中さん、意外(이가이)と優(やさ)しいですね。見直(みなお)しましたよ。

A :벌써, 10시네. 이제 돌아갑시다.

B :벌써 가려고요?

A :네, 아내가 안자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B :에? 타나카시 의외로 자상하시군요. 다시 봤어요.

意外(이가이)と: 의외로

見直(みなお)す: 다시 보다

니하오 쟁구워 <87>

現在几点?

지금 몇 시입니까?

A: 请问, 现在几点?

qǐngwèn xiànlái jǐdiǎn

请问 现在 几点

B: 現在一点。

xìnláitǐ yídiǎn

现在 一点

A: 你几点上班?

Nǐ jǐdiǎn shànggōng?

你 几点 上班

A: 我七点上班。

wǒ qīdiǎn shànggōng

我 七点 上班

A: 五点钟您现在几点?

Wǔ zhōng nín xiànlái jǐdiǎn?

五点钟 您 现在 几点

B: 我七点。

Wǒ qīdiǎn.

我 七点

A: 五点钟您现在几点?

Wǔ zhōng nín xiànlái jǐdiǎn?

五点钟 您 现在 几点

한자 이야기 <697>

角者無齒(각자무치)

뿔 각, 사람 자, 없을 무, 이 치

각자무치(角者無齒)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뿔이 있는 자는 이빨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뿔’은 다른 동물보다 훌륭한 외모를 나타낸다. 다른 동물의 부리움을 받는 외모를 갖추었지만, 정작 자신을 보호하거나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무기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존에 불리하다. 따라서 이 말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이나 재능을 두루 갖추기 어려움을 의미한다.